대구광역일보

1996년 7월 11일 창간 제 4460호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www.dgy.co.kr 오늘의 날씨 대구 1~7℃ 경북 -3~11℃ 단기 4352년 12월 19일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대구, 배출가스 5등급 車 내년 7월부터 운행 제한

대기질 개선·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본격단속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내년 1월 단속카메라 2대 우선 설치, 계도위주 시범운영 시행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기간 홍보·계도 후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당초,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조례를 개정(2019년 12월 24일)해 먼저 시행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월중 단속카메라 설치지점 20곳 중 2곳을 우선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4월말 구축이 완료되면 계도위주의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5등급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할 경우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상시단속이나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진입차량에 대한 상시운행제한 단속과는 달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만 오전 6시~저녁 9시까지 단속이 이뤄지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또한 5등급차량이라도 영업용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5등급차주에게 운행제한 단속내용과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저공해조치 방법 등에 대한 홍보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 그리고 12월 등 총 세 차례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올해 6월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12만2556대(저공해 미조치 차량기준 11만5234대)로 전체 등록차량 117만9594대의 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도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을 앞당겨 내년 1월중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여은 기자

성탄 예배 기도하는 성도들 성탄절인 25일 오전 대구 중구 동산동 대구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확충 공론화 서둘러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 7차 회의 2021년 11월 포화…주민 찬반 논란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관리위원회에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확충 여부를 적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 공론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경주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경주지역실행기구 구성 및 의견수렴 범위와 관련해 "울산 북구 주민 등 다른 지역의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 내 시민단체의 의견도 공식 채널인 실행기구를 통해 접수된 것에 제한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경주 지역실행기구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즉시, 월성원전 맥스터의 증설 여부를 결정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남동 범대위 위원장은 "지난달 출범한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원회의 조사기관 선정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다"면서 "재검토 절차 지연에 따른 월성원전의 운영 차질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주시민은 재검토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검토관리위원회 산하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지난달 21일 원전 5개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출범했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정화 재검토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실행기구 위원 10명이 참석해 협약을 맺고 매월 격주 정기회의 2회 등 6회 이내 회의를 통해 지역 공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주요 의제인 맥스터 증설 여부를 주민설명회, 토론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월성원자력본부는 2021년 11월 포화가 예상되는 맥스터의 증설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맥스터는 중수로 월성 2~4호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시설로 증설 여부에 따라 원전 가동도 결정짓게 된다. 환경운동단체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지역 주민 간에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범대위는 김규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에너지공학과 교수를 지역실행기구 위원으로 추천했다. 현재 실행기구 위원은 원전 소재 주민대표 6명을 비롯해 의견수렴 전문가,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 10명이며 1명이 공석이다. 윤용한 기자

"경북도, 신공항 부지선정 투표에 중립지켜야"

이철우 지사, 확대간부회의서 지시

"경북도는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한다"

이철우(사진) 경북지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신공항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난 24일 도청에서 실국장·직속기관장·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년간 지지부진했던 대구 경북 신공항은 극적인 합의와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거쳐, 이제 주민선택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군위·의성 군민들이 어디에도 방해받지 않고 소신있는 한 표를 행사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부지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투표와 관련해 도에서 이떠한 구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신공항이 경북으로 오는 것은 결국 민항(현재 대구공항)이 함께 오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공항으로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이 지사는 "신공항 이전부지가 신속히 결정되고 건설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는게 도의 역할"이라며 "부지가 선정되는대로 대구시와 함께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공항을 거점으로 항공클러스터, 광역교통망, 배후도시 등 구체적인 발전전략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필 기자

경북도 "내년 포항 철강산업 르네상스 온다"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 내년 예타 통과 확실시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확실시되는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으로 경북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민간평가위원회'에서 4분기 신청 14건 중 1위로 평가돼 부처 예타 순위 1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지난 9일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898억원(국비 2027, 지방비 124, 민자 7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은 '연구개발'과 '산업공유자산 체계구축'의 두 가지로 이뤄진다.

연구개발 부분은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과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2개 분야에서 6개 중점과제 39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과제당 50억~90억원 내외의 금액으로 5년간 총 2580억원이 투입된다. (관련기사 4면)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경북도가 예상하고 있는 지역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한중 '밀착', 한일 '물꼬'…文대통령 1박2일 방중 의미

시진핑과 대북 제재완화 논의…한중 관계 발전 속 美 반발 우려
한일 정상회담 재개 자체에 의미…수출규제·강제징용 과제 여전
中 '일대일로'와 美 '인도·태평양' 연계…中 호응 위해 '무리수'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의 세기성 국제회의장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 후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박2일 중국 방문으로 24일 밤 귀국했다. 한일, 한중회담 자체가 큰 성과라 볼수 있다.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모멘텀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나름의 의미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한반도 평화 유지가 한중일 3국 간 공동의 책임이며,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담았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풀기 위해 중국과 한층 밀착하려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향후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답장 실질 성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드 '봉인' 유지, 한중 관계 실질 복원…대북 제재완화 논의 주목

무엇보다 의미가 깊었던 것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다. 2년 전 한중 간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합의했던 것에서 나아가 실질 관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

기존 5차례의 한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빼지지 않았던 시 주석의 사드 관련 공개 언급이 사라진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비공개 회담 때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한중은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고 했었다"면서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상호 '윈-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바탕으로 한 대북제재 완화론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가장 의미 있는 장면으로 받아들여 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과 관련해 "저희도 주목하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와 한일 정상회담 '물꼬'…수출규제·강제징용 인식차는 여전

아베 총리와 공식적으로 15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라는 평가다.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 등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 총회 이후 15개월 만에 이뤄져 성사됐다.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ASEAN+한중일) 정상회의 직전 '11분 깜짝 환담'에 이어 정상 간 스킨십 주기가 줄어든 것도 기초적인 신뢰 형성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된다.

아베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중요한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매우 중요한 상생 번영의 동반자다.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화답했다.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된 뒤에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3년 반만에 재개된 한일 간 수출규제 정책 대화를 언급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두 정상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양 정상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한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中 반발 의식?…'인도·태평양 전략' 日 구상으로 소개도

문 대통령이 중러가 제출한 안보리 대북 제재완화 결의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의 밀착하게 됐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중국과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이 불편해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시 주석과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논란거리 중 하나인 홍콩 시위와 신장자치구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 눈을 감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 위구르자치구 문제는 모두 중국 내정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 문 대통령이 중국의 편을 들어줬다는 취지의 해석을 쏟아냈다.

한중일 3국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일본의 구상으로 소개한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태평양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지역을 무역투자와 해양안보 벨트로 묶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자는 외교전략이다. 아베 총리가 2016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 처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본의 구상이라고 언급한 데에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미 간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北 '성탄절 선물' 위협에 한반도 안팎 긴장감 여전

北 성명이나 무력 시위 등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중·러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 美 대화 요구 영향
美 정찰기 4대 한반도 동시 출격 등 北 동향 주시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놓고 25일 한반도 안팎이 긴장에 휩싸였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정찰기 4대를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켜 대북 정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날 오전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성탄 도발'을 강행하는 대신 당 전원회의와 신년사를 통해 대미 기조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미국시간으로 25일이 끝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한 데다 미국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표현이 김 위원장이 아닌 외무성 간부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무게감을 둘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성명이나 논평을 비롯해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우주 개발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우주 개발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 기사를 통해 "지난 시기 우주 개발은 발전된 나라들의 독점물이었지만 오늘날 우주는 많은 나라들의 개발 영역"이라며 중국, 인도 등의 위성 발사 사례를 소개했다.

ICBM과 위성 발사는 핵심 기술이나 원리가 거의 같다.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SLV)가 되고,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군용 무기가 탄두에 탑재되면 미사일이 된다. 따라서 북한이 돌연 우주 개발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위성 발사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미국은 정찰기 4대를 한반도 상공에서 동시에 출격해 정찰과 감시 활동을 벌이며 대북 감시 태세를 촘촘히 감시하고 나섰다. 군용기 비행을 모니터링하는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이날 새벽 미국 공군의 E-8C 조인트스타즈, 리벳 조인트(RC-135W), RQ-4 글로벌 호크, 코브라볼(RC-135S) 등 4대가 위치 식별 장치를 켠 상태로 감시 비행에 나섰다.

北 "F-35A는 살인장비…인내심 오판 말라"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

북한 매체는 25일 우리 군이 최첨단 스텔스전투기 'F-35A'와 '글로벌 호크'를 도입한 데 대해 "첨단 살인 장비"라고 맹비난하며 "인내심을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는 25일 '더욱 명백해진 평화 파괴의 장본인' 기사를 통해 "최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무력 증강 책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어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 공군은 지난 17일 청주 공군 기지 격납고에서 비공개로 F-35A 전력화 행사를 열고,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F-35A는 공중, 지상, 해상의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천후 전투기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공군은 내년 추가로 13대, 2021년 14대를 도입해 모두 40대를 확보하고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매체는 "평화의 간판 밑에 동족을 해치기 위한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스텔스전투기 F-35A는 상대 측 지역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첨단 살인 장비"라고 주장했다.

특히 매체는 지난 23일 새벽 북한 전역을 감시할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1호기를 도입한 데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에도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호크의 남조선 반입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매체는 "미국과 야합한 각종 명목의 북침 전쟁 연습 소동을 끊임 없이 벌려놓았으며 스텔스전투기 F-35A,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미국산 첨단 살인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인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계속 도입할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명백히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확약한 북남 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선동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경북의 누정(樓亭), '보물' 승격!

전국 10개소 보물 승격 중 경북도 6개소 승격 쾌거 도 문화유산 위상 드높여

경북도는 6건의 경북도 지정문화재가 보물로 승격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시도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연구를 통해 숨겨진 가치를 적극 발굴해 나가는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 370여 건의 누정 문화재에 대해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1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최종 10건의 누정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신규 지정했다. 그중 6건의 경북도 지정문화재가 보물로 승격되는 결실을 맺었다.

누정(樓亭)은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일컫는 말로, 멀리 넓게 볼 수 있도록 다락구조로 높게 지어진 누각과 경관이 수려하고 사방이 터진 곳에 지어진 정자는 자연속에서 여러 명 또는 혼자서 풍류를 즐기며 정신수양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건축물이다.

경주 귀래정은 전통건축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방식으로 육각형 평면에 대청, 방, 툇마루, 벽장 등을 교묘하게 분할하였으며, 특이한 지붕형식과 섬세하고 아름다운 세부 양식 등을 보여주고 있는 정자다. 육각형 평면형태의 누정도 경북궁 향원정(보물 제1761호), 존덕정(사적 제122호인 창덕궁에 있는 정자), 의암대(김원유형문화재 제48호) 등에서만 찾아 볼 수 있어 희소가치가 크다.

김천 방초정은 영·정조 때 영남 노론을 대표하는 예학자로 '가례증해'를 발간한 이의조가 1788년 중건했다.

보통 누정은 자연의 경관 조망과 관찰자를 매개하기 위해 사면이 개방된 구조이지만 방초정은 계절의 변화에 대응하여 마루와 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가변적인 구성을 가진 정자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안동 청원루는 경상도 지역에서 드물게 'ㄷ' 자 평면구성을 띠는 매우 희귀한 정자형 별서(別墅) 건물이다. 17세기 향촌사회 유력 가문(서인 청서파의 영수 김상헌)의 건축형태를 엿볼 수 있는 시대성과 계층성이 반영된 연구 자료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안동 체화정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하고 창의적인 창호 의장 등에서 18세기 후반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우수한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정자의 전면에 연못과 세개의 인공 섬을 꾸미고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조성하여 조경사적인 가치도 높다.

청송 찬경루는 세종대왕의 비인 소헌왕후 심씨와 청송심씨 가문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관영 누각으로 중수기와 중건기, 상량문, 시문 등에 창건과 중건 과정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공사 기록이 잘 남아 있다.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석루, 울산 태화루 등은 사찰 누각에서 성격이 변한 누각이지만 찬경루는 처음부터 격사의 부속 건물로 격사와 나란히 지어진 현존하는 유일한 관영 누각으로 의미가 있다.

봉화 한수정은 안동권씨 판서공파 후손인 충재 권벌로부터 그의 아들 청암 권동보와 손자 석천 권래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완성된 정자로 초창(1608년)에서 중창(1742년), 중수(1848년, 1880년) 과정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역사 가치가 크다. 또한, 용연(龍淵)과 초연대(超然臺) 정자와 연못사이에 있는 바위, 각종 수목이 어우러진 점원은 초창 이후 400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ㄱ"자형 평면구성과 가구법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식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앞으로도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중 가치 있고 우수한 문화재를 적극 발굴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해 도지정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경주 귀래정

김천 방초정

청송 찬경루

봉화 한수정

"시는 동인동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마련하라"

대구 중구 "도심 재생시대에 걸맞은 방안 제시해야"

대구시 중구가 대구시에 동인동 시청사 후적지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는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 시청사 일대를 시립박물관, 대구기록원, 평생교육원 등이 잘 어우러진 역사·문화·관광 허브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새깊도 없고 궁합도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는 법"이라며 "막연한 형태의 형사진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도심 재생시대에 걸맞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청 본관

또 "시청사 이전으로 도심 상권 침체는 물론 원도심 전체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점어드는 대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적지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2일 시민참여단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터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선정했다.

1993년 중구 동인동에 들어선 대구시청은 좁은 공간과 주차장 부족,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으로 산측 논의가 이어졌다.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이 신청사 유치 경쟁을 벌였으며 중구는 도심 공동화 등을 우려해 이전을 반대했다. 조어은 기자

취업을 위한 맞춤형 학숙…경북학숙 2020년도 입사생 모집

내년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접수 입사생 197명(남 56, 여 141) 모집

경북도는 (재)경북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경북학숙의 2020년도 입사생 선발계획을 26일 도청 및 경북학숙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인원은 197명(남학생 56, 여학생 141)으로, 입사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보호자(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지가 경북도내로서, 경산시·대구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면 지원가능하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2020년 1월 13일~1월 22일까지 이며,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시·군 교육협력업무 부서 및 경북학숙에서 실시하며, 합격자는 2월 7일 경북학숙 누리집(www.kydel.or.kr)을 통해 발표한다.

경북학숙은 경북도가 도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면학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발전의 중추적인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건립한 대학생 기숙사로서 1998년 3월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7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경북학숙 생활관 전면 리모델링 및 매트리스, 책상, 옷장 등 비품 교체를 완료했으며, 기숙사비 월 16만원으로 숙식 및 학숙 내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타 학숙과 차별화된 경북학숙의 자랑인 '외국어회성화 교육'은 2007년부터 재사생의 영어회화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재사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 교재비용 및 외국어회화능력시험 응시료 등 모든 비용은 학숙에서 부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학숙 관리과(053-850-9777)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길 기자

2019년 경북도 MVP 공무원 선정

투자유치실 장상열 사무관 원자력정책과 이미경 주무관

경북도는 '변해야 산다'는 이철우 지사의 도정철학을 기치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MVP 2명과 시책유공 공무원 7명 등 총 9명을 '2019년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MVP 공무원(남)으로 선정된 투자유치실 장상열 사무관은 도정역점 시책인 투자유치 분야에 공적이 인정됐으며, 특히 'LG화학'을 경북형 상생형 입자리 모델(5000억, 1000개 일자리)로 만들어 유치함으로써 구미 5공단 분양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또 한명의 MVP 공무원(여)으로 원자력정책과 이미경 주무관은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및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원자력 관련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큰 역할을 했으며, 경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 수립·추진과 더불어 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원전해체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시책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된 과학기술정책과 권미선 주무관은 홈로그램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통과(국비1313억),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ICT 산업 관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농식품유통과 김수환 주무관은 혁신적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경북과수통합브랜드 'daily'육성으로 마케팅 수익실적(5191억)부분과 출하예약제를 통한 취약농가 농산물 판매부담 경감 등에 유공이 인정됐다.

경북도서관 백종민 주무관은 경북도서관 기반을 마련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도청신도시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미래전략기획단 심인보 사무관은 지역발전투자 국비 공모사업 선정(국비 91억), 경북 생활 SOC사업 총괄추진(국비 986억), 메가 프로젝트 과제 발굴에 종합적인 역할을 했다.

예산담당관 이원춘 사무관은 경북도 개발공사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일정금액을 신도시 내 공공용지 현물배당액으로 확보해 도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부지 확보에 기여했다.

인사과 이정하 주무관은 대주 화요일 아침 화공 굿모닝 특강 운영, 새바람경북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해 도청 직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도로철도과 조현고 주무관은 2020년 국가지원 SOC사업(국비 2조1822억) 국비확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비타당성 면제(2건), 철도분야 도민숙원사업 및 국비예산 확보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번에 선정된 MVP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포상금 각 5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올 한해 경북도 공직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어서 각종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등 많은 도정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면서 "내년도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신바람 나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최준길 기자

한국 합계출산율 0.98명 대구·경북 신생아실 텅텅

올해 출생아 전년比 두 자릿수 감소
대구 3분기 합계출산율 0.89명 불과
"삼포 현상, 저출산 연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으로 집계됐다. 임신이 가능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기 수가 1명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뉴시스는 대구·경북의 신생아 수가 줄어든 이유와 현황, 정책의 문제점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요새 정말 아기를 안 낳아요. 정말이라니까요"

지난 23일 대구시 중구의 산부인과 병동. 신생아실에는 아기 침대 수십 개가 즐비했지만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었다. 2주 동안 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4명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다는 데 병동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겨울이라 출산율이 떨어진 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는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우리끼리 신생아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를 나누는겁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출산 문제는 일본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딴 나라 이야기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8명으로 집계되면서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다.

대구·경북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신생아 수가 줄어 저출산의 그늘이 짙다.

25일 통계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9월 대구의 출생아 수는 10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1명)보다 3.7% 감소했다.

경북의 출생아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1214명)보다 7.9% 감소한 111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1~9월) 대구·경북의 누적 출생아 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자릿수까지 줄었다.

대구의 누적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1만1180명)보다 10.2% 감소한 1만37명이었다.

경북은 1만11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411명)보다 10.4%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대구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졌다.

대구는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7명을 기록하며 1명을 간신히 유지했지만 지난해는 0.99명으로 사상 최저치다. 국가통계포털 코시스(KOSIS)에 따르면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1~3월) 1.01명, 2분기 (4~6월) 0.9명, 3분기(7~9월) 0.89명까지 떨어졌다.

경북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0.98명)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1.26명)과 비교하면 0.09명 줄었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선이 2.1명임을 고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심화하는 모양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른바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세대 현상이 심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임 여성의 수도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황태용 기자

경북도 "내년 포항 철강산업 르네상스 온다"

(1면에 이어)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은 분말기반 맞춤형 철강소재, 고특성 철강소재, 고강도 철강소재 가공기술, 후처리 기술 등을 주요내용으로 소재물성 및 공정기술의 동반 향상을 통해 미래 신산업인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급형·공구강 등에 적합한 고부가·고기능 철강재 수요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을 중점 수행하게 된다.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은 철강산업의 원료와 및 고순도화 공정기술, 산업간 응용기술 등 슬래그, 분진, 슬러지를 포함한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연계 제품화 기술개발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염물질 저감 및 폐자원의 자원화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들이다.

이들 과제들은 "중소철강사 육성을 통한 철강생태계 강화"라는 사업의 중점 목표에 따라 다품종 맞춤형 소량생산 체제에 부합하고 중소기업 기술로 적합한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또 산업공유자산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발굴된 R&D 실증지원을 위한 실증인프라 구축, 기술DB 공유, 산업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효율적 성과확산을 목표로 30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R&D 실증을 위한 고압진공 아크 재용해 정련로 등 15종의 실증장비 구축과 지역 거점을 활용한 철강산업 집적지(포항, 광양, 당진) 중심의 공정기술DB 체계 확립과 기술자료 공유, 산업간 협의체 구축 등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70여개 이상의 철강 강소기업 육성과 8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 4000여개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해 철강산업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의 쌀이자 경북경제의 핵심 동력인 철강산업이 살아나야 포항이 살고, 포항이 살아야 경북의 경제와 산업이 되살아나기에, 철강혁타 사업의 성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아직 본혁타 통과라는 큰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말고, 지금까지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혁타통과의 그 순간까지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최준필 기자

경북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은 지난 23일 오후 애생보육원(대구 동구 검사동)에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 오른쪽 네 번째 이상학 경북지방우정청장, 오른쪽 세 번째 이종영 보육원장.

경북지방우정청, 따뜻한 사랑나눔 실천

자매결연 맺은 애생보육원 방문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경북지방우정청(청장 이상학)은 지난 23일 오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애생보육원(동구 검사동)을 방문해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우체국행복나눔봉사단과 이종영 원장을 비롯한 보육원 직원 및 아동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전기, 의류, 화장품 등 아이들이 희망하는 선물을 전달하며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학 경북지방우정청장은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주길 바라며,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애생보육원과 지난 2016년 6월에 "우정나눔 · 희망배달"이라는 주제로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피자파티, 문화행사지원, 학용품 및 생활물품지원, 보육원 청소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조여은 기자

포항지진범대본, 지열발전시설 철거 반대

신한캐피털 대리인 '시설물 철거해도 영향 없어' 주장
원고측 대리인 '철거과정서 단층 건드려 위험' 강조
포항시민들 "생명 위협하는 돈벌레 신한캐피탈" 각성 촉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포항지진범대본)가 변론과정에서 지열발전시설 철거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민사1부 판사 서영애)은 지난 22일 오후 포항지진 피해보상 집단소송 3차 변론과 지열발전시설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포항지열발전소 시설물 철거에 대한 것으로 지열발전 시추시설 등의 소유권자인 신한캐피털 대리인은 포항범대본이 제기한 지열발전 시추시설 등의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방이 가열됐다.

신한캐피털측 대리인은 "지열정과 시추시설이 분리돼 있어 시설물 철거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 같다"며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정성검토TF팀 외국인 연구진에 의해변 시추시설 등을 철거하더라도 추가 지진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관련 시설물에 대한 매수인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돼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연구에 참여한 개인의 견이 아니라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정성검토TF(테스크포스)팀 공식견해를 밝혀 달라"며 "지열발전 시추기가 90m 높이에 있고 땅 속으로도 상당이 깊이 들어가 있으므로 철거과정에서 단층을 건드려 추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영애 재판장은 네스지오측 대리인에게 "지열발전소 부지를 복구하겠다는 답변서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작성됐느냐"고 질문했고 네스지오측 대리인은 "그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산업부는 이미 굴착된 지열정 내부에 지진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서영애 재판장은 "포항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므로 한 기일을 더 열어 판단하자"며 오는 2020년 3월2일을 4차 변론기일로 정했다.가처분신청 2차 심문기일은 오는 1월31일로 앞당겨 결정했다.

폐정 후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다수의 포항시민들은 법정에서 나오는 신한캐피털 대리인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포항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돈벌레 신한캐피털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현재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현재 토지 소유는 넥스지오,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등은 신한캐피탈이 가지고 있다. 강동진 기자

대구경북병무청, 병력동원수송로 점검 완료

병력동원 집결지와 소집부대
수송 주요 이동로 총 11개 구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한 병력동원수송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사시 동원되는 병력의 안전수송과 신속한 병력동원을 위해 예비군 병력이 모이는 집결지와 소집부대까지 수송구간 중 주요 이동로 총 11개 구간에 대해 실시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집결지로서의 적합여부 및 수송로 상 터널, 교량 등 취약지점 점검, 신설 도로 활용 가능성, 우발사태를 대비한 우회도로 등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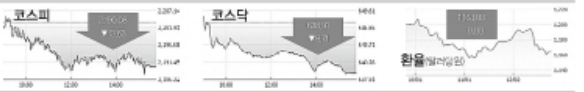
특히 동절기 수송에 대비해 상습 결빙구간(Black Ice) 등 안전 수송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집중점검했고, 이번 점검 결과는 향후 전시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황태용 기자

대구도시철도, 이색 이벤트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난 24일 환승역인 명덕역, 반월당역, 청라언덕역 승강장에서 도시철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고객감사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산타와 공사 캐릭터 복장을 한 직원들이 도시철도 이용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승객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였다. 준비한 수건세트, 문패상품권, 장갑, 핫팩, 립밤, 돼지저금통 등이 금새 동이 났다.

행사에는 도시철도 내 공공질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계명대학교 동아리 WC(월드체인지)팀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태용 기자



경북 농산물직매장 5곳, 정부 공모 선정…국비 18억 확보

경주시 경주농협 5억, 내남농협 2억 천북농협 3억, 구미시 5억, 영덕군 3억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0년 직매장 지원사업"에 5곳이 선정돼 앞으로 2년간 국비 18억원(총 사업비 61억원)을 확보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중·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직거래 공간으로 생산자는 제값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농가 레스토랑,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 시설을 갖춘 복합 직매장은 단순한 판매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한 로컬푸드 식문화 공유·확산의 중요한 거점 역할도 한다.

선정절차는 사업부지 확보, 입지조건 등 서면심사, 현장실사와 최종발표평가로 진행된다.

이번에는 전국 21곳(경북 5, 경기 1,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3, 전남7, 경남 1곳)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경북은 경주시 경주농협(5억원), 내남농협(2억원), 천북농협(3억원), 구미시(5억원), 영덕군(3억원) 등 5곳이 선정됐다.

1년차 사업자인 내남농협, 천북농협은 직매장으로 100㎡ 이상을 설치하며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벌인다.

2년차 사업자인 경주농협, 구미시, 영덕군은 1년차에는 설계 등을 심시하고 2년차에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키즈카페 등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를 진행한다.

경북도는 올해 공모에서도 3곳이 선정됐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단위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확대해 취약농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춘길 기자

LH 대구경북본부,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수상

사회공헌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 지역 사회공헌 활동 확대로 보답

LH대구경북지역본부는 26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서 사회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한다.

2016년부터 시작돼 금회로 4회차를 맞이한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역할과 공이 큰 주요인물, 기업, 단체들을 부문별로 선정해 수상하고 있으며 수상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총 25개 부문이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19년 김정진 본부장의 취임 이후 사회공헌의 지속가능성, 수혜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강화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특화 사회공헌활동을 중점 추진한 공로를 높이 사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한 해 동안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어르신 무병장수 사진촬영 및 의료봉사활동, 독거노인세대의 거주환경개선,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아동과 함께하는 문놀이 활동 등을 시행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정진 본부장은 수상의 공로를 LH 직원들에게 돌리며 지역에서 LH의 사회적역할을 더욱더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어은 기자

㈜금복주,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홍보 업무협약 체결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맛있는참' 보조상표에 홍보 2020년 상징 202만병 생산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주류회사 금복주가 지난 24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복주와 대구시, 경북도는 지역 관광 산업의 발전과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의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금복주는 대표 브랜드 '맛있는참' 보조상표에 관련 내용을 삽입해 연간 202만병을 제작해 홍보하기로 했다.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 생산하는 202만병(=2020천병)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원년이 되는 2020년을 상징하는 의미이다.

금번 '맛있는참'을 통해 홍보하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3년간 대구시와 경상북도 공동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구·경북으로 유치하는 상생협력 관광 사업이다.

㈜금복주 이원철 대표이사는 "2020년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원년이 되는 해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고 붐이 조성돼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원철 ㈜금복주 대표이사, 김호섭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부섭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어은 기자

화성산업, 중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도급계약

공사금액 652억원, 총 230세대 건립

화성산업(대표이사 사장 이종원)은 지난 23일 ㈜제이에프개발(대표이사 사장 장해수)과 '수성구 중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중동 주상복합아파트는 대구시 수성구 중동 179번지에 지하4층, 지상29층 2개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함쳐 총2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아파트는 전용 84㎡ 156세대, 오피스텔은 전용84㎡ 74실로 각각 구성돼 있다.

사업예정지는 지난 1995년 준공한 대동타워이며 옛 대동은행 본점 사옥이었던 곳으로서 건물철거후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거지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철도 3호선 황금네거리역, 수성로, 신천대로, 신천동로 등 시내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성IC, 북대구IC 등을 통해 시외부로의 교통이 편리하며 황금초중, 늘민중고, 경북고, 정화여중고 등 수성구 최고 명문학군과 인접하고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인근에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본 사업지는 알산과 신천이 인접한 수성구의 핵심적인 위치로 교통, 교육,문화 환경이 잘 어우러진 점점을 살려 최고의 품질가치로 새로운 대구의 랜드마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조어은 기자

'화원파크뷰 우방 아이유쉘' 538세대 조기완판

대구교도소 이전하는 내년부터 인근 본격적 개발 기대 심리 큰 몫

SM그룹(우오현 회장)의 건설부문인 SM우방산업㈜(대표이사 조유선)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690-1번지 일원에 공급한 '화원파크뷰 우방 아이유쉘' 538세대를 100% 분양 완료했다.

지하 1층~지상 33층 4개동 규모인 '화원파크뷰 우방 아이유쉘'의 공급면적별 세대수는 △69㎡ 232세대 △74㎡ 52세대 △84㎡ 254세대 등 전체 538세대로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실속형 중소형 단지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화원역 인근 5년만의 브랜드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아울러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의 첫 수혜단지와 천내천 수변공원과 명곡체육공원 등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열구 조망권을 확보한 최적의 주거환경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분양에 활기를 띠었다.

달서구와 연접해 있고 뛰어난 자연환경과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온 화원지역은 천내리를 필두로 구라리, 명곡, 설화리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주거타운이 형성되면서 발전 속도와 지역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 등으로 제2의 도약을 시작하는 화원지역에서 '화원파크뷰 우방 아이유쉘'은 그 마중물이자 랜드마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업지의 특성상 투자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시장과 한풀 꺾인 분양경기 속에서도 조기에 완전분양을 이뤄낸 것은 화원의 개발비전과 함께 '우방 아이유쉘' 브랜드 파워가 큰 몫을 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인근 주민들은 벌써부터 화원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내년에 대구교도소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현재 후적지 개발의 방향에 대해 대구시, 달성군이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 이 같은 개발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달성군의 부도심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은 물론, 한 때 옥포, 현풍, 구지 등의 신도시 개발로 유출됐던 인구들이 재유입 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화원파크뷰 우방 아이유쉘'은 개발비전과 함께 조망권이 확보되는 동간 간섭이 없는 단지설계와 4Bay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해 쾌적한 단지를 구현하고 알파룸의 공간 활용도를 높인 설계와 각 타입별로 특색 있는 평면배치, 수납특화 공간을 선보여 제품 측면에서도 수요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천내리 우방 아이유쉘의 시공사인 우방산업㈜는 도시재생사업과 친환경 주거환경 개발에 대한 공로로 2019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친환경건설부문)을 수상했다. 우방산업㈜의 조유선 대표이사는 "당장에 수주 목표에만 집착하지 않고 우방의 친환경적인 미래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 주택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SM그룹 차원의 우방 아이유쉘 브랜드에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다. 내년 봄 화원 설화리에 예정된 우방의 2차 사업도 이런 방향에서 우방 브랜드의 시너지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화원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우방 아이유쉘'은 화원읍 천내리의 '화원파크뷰 우방 아이유쉘' 538세대 분양완료에 이어 화원읍 설화리에 2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사업부지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78-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대지면적 1만4710㎡에 지하2층 지상 29층 규모로 지어질 '설화명곡 우방 아이유쉘'의 예상 공급면적별 세대수는 △59㎡ 56세대 △84㎡ A타입 237세대 △84㎡ B타입 27세대로 모두 320세대 규모다.

입지장점으로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이 도보 5분 거리의 대로변에 위치해며 단지 바로 앞을 지나가는 비슬로와 고속도로 화원옥포 IC가 가까워 시내외로 진출이 용이하다.

게다가 4차 순환도로 완전개통이 2021년으로 예정돼 있어 입주 시에는 현재보다 현저히 개선된 교통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SM상선㈜ 건설부문(대표이사 박기훈)과 ㈜우방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은 화원 2차사업 '설화명곡 우방 아이유쉘'은 내년 3월경 견본주택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어은 기자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취재·구혜영기자
054)287-0000

주낙영 경주시장은 26일 오전 경주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리는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지회 2020년 사업평가대회'에 참석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26일 오후 울진군민회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19년 울진군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에 참석한다.

울릉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울릉군은 지난 9~23일까지 8회에 걸쳐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했다.

이동복지관은 복지관으로의 접근성이 취약해 문화적 단절을 겪는 경로당 6개소를 방문해 건강팔찌 및 브로치 만들기, 꽃꽂이, 떡 만들기 수업 등 취미여가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추억 만들어 줘서 고맙고 덕분에 경로당 회원들 간 친목도 도모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향후 군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정운환 기자

영덕군새마을회, 종합평가 및 지도자한마음대회 개최

영덕군새마을회(회장 박일동)는 지난 20일 영덕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19 영덕군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및 지도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이희진 영덕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새마을가족 1000여명이 참석해 함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1부 행사에는 올 한해 새마을운동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실천다짐으로 지도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이어 2부 행사는 지도자 화합 어울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태 기자

2020년 특별한 첫 해돋이 천년고도 경주로 오세요~

문무대왕암 일출

함월산에서 일출

양남 주상절리 일출

모전리 일출

문무대왕암부터 주상절리… 신라천년 호국의 영산 토함산까지

해돋이 명소 중에서 가장 길한 곳을 찾는다면 단연히 경주 동해바다이다. 1400여년전,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암부터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주상절리, 개장 100주년을 앞둔 감포항 송대말 등대와 신라천년 호국의 영산 토함산까지 오랜 세월 조상들의 간절한 마음이 켜켜이 쌓여있는 뜻깊은 곳들이다.

▣동해에 잠든 해룡과 함께, 문무대왕암

양북면 봉길 해변에 있는 대왕암의 일출은 한 마디로 일품이다. 대왕암은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라 제30대 문무왕의 수중릉이다. 죽어서까지 해룡이 돼 나라를 지키려 한 문무대왕의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는 곳이다. 바다 가득한 해무를 헤치고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수중릉을 비상하는 갈매기의 군무를 볼 수 있어 전국 최고의 일출 명소로 손색이 없다.

봉길리 앞바다에는 매년 새해의 희망을 전하는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오는 31일부터 1박2일간 열리는 '신년해룡축제'는 7080라이브 공연과 축하공연, 2020년 카운트다운 등 전야제와 새해 피포먼스, 문무대왕과 신년을 기리는 시낭송, 문무대왕을 부르고 모시는 의식, 용의 비상 연출, 창작연과 묘기연의 시연, 떡국나눔 등 축제로 이어진다.

해맞이 후에는 인근의 이견대와 감은사지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멀리 대왕암을 내려다보는 이견대는 문무왕의 대를 이은 신문왕이 세상을 구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옥대와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여기서 내륙 쪽으로 5분여 들어가면 감은사지가 있다. 2개의 거대한 삼층석탑은 그 웅장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절묘한 비례의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들의 찬사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천혜의 비경, 양남 주상절리

경주 동해바다에도 주상절리가 있다.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된 경주 양남 주상절리는 읍천항과 하서항 사이의 해안을 따라 약 1.5㎞에 걸쳐 형성돼 있으며, 꽃봉우리 모양, 쥐로 솟은 모양, 기울어진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을 감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수평으로 넓게 퍼진 부채꼴 모양 절리가 압권이다.

파 드인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주상절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스러우며, 떠오르는 해와 함께 펼쳐지는 절경을 담기 위해 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찾고 있다.

주상절리 조망타워 주변으로 바다향이 물신 풍기는 파도소리길, 유채향 벽화마을이 있어 해돋이의 운치를 한층 더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주관하는 주상절리 해맞이 행사가 주상절리 조망타워 앞 광장에서 열리며 주상절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떡국나눔 행사도 실시한다. 새해 소원도 빌고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오래 기억될 소중한 추억도 만들 수 있다.

▣동해의 아름다운 일출 명소, 감포 송대말

감포항 인근의 송대말(松臺末)은 소나무가 많은 육지 끝 부분이라는 뜻으로 일출과 일몰이 모두 절경을 나타내는 곳으로 사진 찍기 좋은 출사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감은사지 삼층석탑을 형상화한 송대말 등대가 아름드리 소나무 숲과 시원하게 펼쳐진 동해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일출 풍경을 연출한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일출 풍경에 해안 가까이 위치한 갯바위와 무인등대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송대말과 가까운 감포항 남방파제에서는 감포읍 새마을회 주관으로 해맞이행사가 열린다. 새해 아침 오전 6시부터 따뜻한 떡국과 어묵, 커피 등을 해맞이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파도가 쉼 없이 밀려드는 방파제에 서면 탁 트인 시야 아래 하늘과 맞닿은 검푸른 바다 빛 위로 떠오르는 황홀한 일출을 경험할 수 있다.

해돋이가 끝난다고 여행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바다와 항구의 생동감,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다소곳이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감포 짝지길도 빠질 수 없다. 특히 4구간 '해국길'은 옛 골목의 정취를 간직한 길이다. 이름처럼 골목 벽마다 그려진 색깔이며 모양이 다른 해국을 보며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신라 천년 호국의 영산, 토함산

불국사와 석굴암을 껴안고 있는 신라 천년 호국의 영산, 토함산에서의 해맞이는 여부터 우리나라 팔경의 하나로 손꼽혀왔던 절경 중 하나로 일출 명소답게 동해안 조망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토함산이라는 명칭은 산이 바다 쪽에서 밀려오는 안개와 구름을 들이마시고 토해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수없이 이어진 산 봉오리에 얼은 운무가 꺼면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고, 때로는 수평선 멀리 운무가 깔려 하늘 끝이 닿기도 하며, 동해의 푸른 물결이 손짓해 부를 만큼 가까이서 출렁이기도 한다. 바다가 끌어오르듯 붉은 구름을 피워올리다가 순식간에 솟구치는 해돋이는 일생에 꼭 한 번쯤은 가져 볼 만한 경험이다.

윤용천 기자

'포항 GreenWay' 많은 성과 이뤄

포항 GreenWay 범시민추진위원회 연말결산 및 신규사업 보고회 개최 녹색도시분야 대내외 성과 인정받아

포항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GreenWay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포항 GreenWay 범시민추진위원회는 포항을 녹색생태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그린웨이 프로젝트에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구성된 시민참여기구로서 100명의 지역 시민사회 단체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대 포항시장, 박승대 포항 GreenWay 범시민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100명의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2019년 연말결산과 유공자 시상, 2020년 신규사업 보고를 주요내용으로 열렸다.

2020년에는 'GreenWay가 있어 가·능·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추진 목표로 삼아 더할가, 머물 늘, 즐길 한을 주제로 △숲과 물길을 더한 쾌적한 도시! △사람이 머무르는 매력적인 도시! △즐김 거리가 있는 재미있는 도시! 라는 3대 세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발굴사업 15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분과별로 살펴보면, △센트럴 그린웨이 분과에서는 포항 철길숲 시민광장, 초록골목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등 6개 사업으로 도심 생활권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오션 그린웨이 분과에서는 형산강 해양 관광레저, 용한 서퍼비치, 어촌뉴딜 300 등 5개 사업으로 해안권역의 체험 문화를 활성화하고 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할 강화하며, △에코 그린웨이 분과에서는 포은 정몽주 테마랜드,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포항을 산림휴양 및 체험 프로그램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는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많은 성과를 내며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해로서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범시민추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시민사회와 협력해 포항을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한국당 예비후보 박형수, 내년 국회의원 출마 선언

지역구 영양·영덕·봉화·울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박형수후보는 지난 23일 오전 예비후보사무실에서 울진 주재기자 20여명과 관계자들 약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박형수 예비후보는 영양, 영덕, 봉화, 울진 군민을 더잘살고 행복하게하는 민생문제 해결사로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자리에섰다고 밝히면서 울진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재개, 영덕 동해선 철도복선화, 봉화 산림휴양도시건설, 영양 31번국도 4차선확장 등을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4개군 지역의 미래와 정지를 발전시키고 침체된 지역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감히 출사표를 던졌다"고 말하고 지역민심에 따라 '이제는 바꿉시다'라는 슬로건을 나걸었다고 밝혔다

박형수 예비후보 울진평해중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영진고등학교와 서울대법대를 나와 대구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형상 기자

경주시, 농업분야 조례 제정 새로운 미래 농업 설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농어촌민박산업 운영 활성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농어업관련 조례 제정으로 새해에는 농업도시의 위상을 한층 올릴 계획이다.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참여, 교육기회 확대,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주시 농어촌민박산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화를 도모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를 개정해 기금 10억원을 대형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융자금으로 지원해 어려운 농촌에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농어촌이 풍요로운 부자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농림축산해양국 신설과 함께 각종 조례 제정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 농어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며 "새해에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한층 발전 된 경주시 농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윤용천 기자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최영조 경산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경산시체육회 제4차 이사회 및 체육유공자 시상식"에 참석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26일 오후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19년 영천지역사회포장협의체 워크숍"에 참석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26일 오후 ㈜불스에서 열리는 "우수기업 현장방문"에 참석한다.

백용환 고령군수는 26일 오후 운수면 광산지구 황금테마파크 조성사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한다.

청도군, 올해 군민과 함께하는 농업정책 빛났다

정부·경북도 정책 평가서 최우수2·우수3개 수상 쾌거

경북도 농식품 수출정책평가 청도군 최우수상 수상 장면

청도군은 2019년도 군민과 함께하는 농업정책을 펼친 결과 중앙 정부 및 경북도로부터 최우수 2(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가축방역 평가), 우수3(전국농기계임대사업평가, 농촌진흥사업, 농촌개발분야)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군은 대도시 대구, 경산, 경주, 울산, 영천, 밀양시와 청년군과 인접한 영남의 중심부다. 2018년말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인구는 4만3057명(2만2181세대)이며, 그 중 농업인구는 1만5115명(7437가구)으로 35%이다. 주요 농축산물 연간 조수입은 4680억원, 억대농가는 929호로 친환경 농업군이다.

이에 청도군에서는 농림해양수산부문에 548억원(총예산의 15.58%)을 투입 농축산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온 한 해였다. 주 소득원은 청도반시, 복숭아, 버섯, 한우, 돼지, 쌀, 딸기, 미나리, 대추, 사과이며, 최근 기후변화로 산딸기, 아열대작물이 늘고 있다.

올해는 마늘, 양파, 복숭아등 농산물 가격하락과 국내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정책시행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첫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품목별 공선장 지원으로 공선물량과 품목이 사과, 산딸기까지 확대(4품목 9개소 3242톤 62억원)됐고, 서울, 부산 대도시 백화점에 복숭아, 청도반시, 감말랭이 등 홍보판매 및 상설매장 운영, 바람회 참가(35회 6억7400만원)와 로컬푸드 판매장 확대로 매출이 증가(6개소 65억300만원)했다.

둘째,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농산물수출담당관을 특채하고, 지난 2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는 국내 및 캐나다, 중국 해외바이어를 초청 우수 농특산물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서 수출확진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9.27~10.3까지 캐나다 벤쿠버, 토론토에 이슬을 청도군수, 바기호 군의회의장, 경북통상관계관이 직접 참가한 해외판촉 및 MOU 체결로 딸기, 산딸기, 깐마늘, 깐밤등 신규품목 수출길을 열었다. 금년도 11월 딸기준 수출실적은 6208만불로 산딸기, 양파가 신규 수출길에 올랐다.

셋째, 한우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혈통등록이상의 우수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전주 경상대학교와 협업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지난해 30두에 이어 금년에는 75두로 2배 이상 늘려 우수형질의 송아지를 생산 축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AI, 구제역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재난대책본부 가동, 거점소독시설 운영은 물론 고속도로 IC, 군계, 축산농장입구 및 주요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도포 소독하고, 청도천, 동창천, 축사에는 공동방제단을 동원 매일 소독실시 및 소, 돼지등 우제류에 대한 주기적인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경주함으로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농업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8명)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18명),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1명), 청년농부육성(1명),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3명) 등 지원으로 농촌인력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을 조성 주요 농축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이하로 하락시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2019년 경북도주관 시군평가에서 농식품수출평가 최우수, 가축방역평가 최우수 기관상, 농촌개발분야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우수,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진흥사업 우수를 수상했다.

이승을 청도군수는 "이 모든 성과는 군내 모든 농업인과 군민들이 군정에 적극 동참해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이 영광을 군민들과 함께 나누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행 기자

고령군,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제도 실시

고령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고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운전면허 결정 취소 통지서를 군청 민원과(교통행정담당)로 제출하면 1회에 한해30만원 상당 고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 연도 추가예산을 확보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백용환 군수는 "내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처 하고자 시행하는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신동면 기자

성주군,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개선도 1위

규제 풀어 3D프린터 판로 개척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전국 최대 개선율

성주군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경제활동친화성이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개선된 지자체로 성주군(214위→118위)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기업체감도'와 조례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으로 나눠, 5가지 등급(S-A-B-C-D)을 부여하고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긴다.

성주군 경제활동친화성부문의 개선 비결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었다. 기업체 방문 시 항상 기업에로 청취하고 신속한 예산확보를 통해 가로등 설치, 도로확포장공사 등 기반시설을 정비했으며, 3D 프린터의 핵심부품인 '3D 필라멘트'의 분류코드가 없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관계 부처를 찾아 분류코드를 신설하는 등 기업 애로 해소에 기여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군은 현재 1004개 업체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현장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펼쳐 역점시책인 군민중심 행복성주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박노균 기자

시민이 뽑은 영천시정 베스트 7…'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가장 많이 선택

2위는 광역교통 무료환승

영천시는 24일 2019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이 가장 공감하고 무수하다고 생각하는 시책 '베스트 7'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2019 영천시정 베스트 7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 시 홈페이지와 시청 로비, 영천역, 경로당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됐으며, 17개 시책에 2만6773표가 나왔다.

시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시책은 버스승강장 시설개선이었다. 최기문 시장은 취임 후 승강장에 에어커튼, 온돌의자, 바람막이 등을 설치,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승강장 환경을 크게 개선한 점이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

2위는 영천-대구-경산 간 광역교통 무료환승이 선정됐다. 지난 8월 13일 대구, 경산과 버스 지하철 광역교통 무료환승 실시 후 버스 이용객이 부쩍 늘었고, 특히 신녕, 청통 구간 추가요금이 폐지되어 교통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베스트 7에서 교통분야가 1, 2위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실제로 시민들이 직접 버스승강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했기 때문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3위는 영천인구 8년 만에 10만2000명 회복, 4위는 분만산부인과 착공, 5위는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확대 및 운영, 6위는 초·중·고 무상급식 추진, 7위는 인천공항 직통버스 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투표결과에서 보여주듯 '시민 및 출향 행정, 시민 체감형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결과를 잘 분석해, 2020년에도 시민들이 더욱 만족하고 피부로 느끼는 행정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은하 기자

영천시 옥천가 대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칠곡군, 2019 스타기업 선정 삼보프라텍·에이지벨브·한성브라보

칠곡군은 24일 삼보프라텍㈜(대표 이석우), 에이지벨브㈜(대표 양희조, 신호경), ㈜한성브라보(대표 이혜용, 배상형) 등 3개사를 "2019년 칠곡군 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타기업은 매출·수출·고용 실적 및 기술개발 노력도 등 전반적인 회사의 재정 상황을 평가해 결정하며 향후 3년간 칠곡군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기업지원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삼보프라텍㈜는 약목면 소재기업으로 1986년부터 자동차용 Encapsulation Glass개발을 시작으로 블로우몰딩 Spoiler와 범퍼가드 개발에 성공해 자동차의 고급화 및 연비개선에 기여했다.

또 Smart Factory 구축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그 공로로 2018년 경북도 대표 스마트공장으로 선정됐다.

에이지벨브㈜는 관내 대표 물산업기업으로 산업용 콘트롤벨브 전문제조업체이다.

주력제품인 버터플라이 벨브와 공압식 콘트롤 벨브 제조기술력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아 2018년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384% 증가했으며 2019년 대구·경북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한성브라보는 2012년 설립이후 꾸준히 거품세차기, 노브러쉬세차기 및 DIY 세차장비를 연구·개발해 국내외 관련특허를 21건 획득했고, 2013년 1억5000만원이던 매출을 2018년 약 43억으로 끌어올렸다.

박노균 기자

구미 김천 문경 상주 군위 의성

장세용 구미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1층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열리는 구미시장학재단 장학기금 기탁식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6일 오후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19 송년 콘서트'에 참석한다.

김천시,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시행 컨설팅 교육

김천시는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화 부숙도 시행 대비를 위해 축산환경관리원 이형석 박사의 퇴비 만들기 실습(퇴비화 부숙도 육안판별법) 및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축산 농가와 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한 축산 농가들로부터 평상시 관리해왔던 퇴비 처리를 부숙도 기준에 맞게 축사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 하는 방법, 대표성을 띤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최준경 기자

구미시, 고문변호사 3명 신규 위촉

구미시는 지난 24일 오후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신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였다.

이날 신규 위촉된 성삼희 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육심원 변호사는 복잡하고 특화된 각종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행정·민사 소송 등으로 인한 막대한 행·재정력의 낭비를 막고 시민 제일의 법무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관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민정 변호사를 여성최초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여성과 남성의 균형적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구미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은진 기자

의성군, 도내 최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내년 2월 행안부서 인증서 재정인센티브 교부 받는다

의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도입한 제도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22개 진단항목과 분야별 5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당 인증제를 통해 올해 의성군을 포함한 8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내년 2월 행안부로부터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된다.

의성군은 그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마인드를 기반삼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 등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해 65건에 이르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그 중 4건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됐고 '농어촌민박 부속건물 설치 기준 완화' 외 1건이 건의 수용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11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조정회의 안건 23건 중 군에서 건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기관 확대' 외 1건이 추가 수용되는 결실을 맺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관련 규제애로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되며 2년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성장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마음과 세대를 잇다 '젊은 구미 잇-토크'

장세용 구미시장, 젊은 공무원들과 시정발전 대해 토론하는 시간 가져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젊은 구미 잇(it)-토크'를 개최해 업무방식 개선에서부터 신규 시책개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실무자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8급 이하 젊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자리는, 시민들과 접점에 있는 행정 최일선 실무자들과 소통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간부 공무원의 참석을 제한하고 특색있게 참가자를 소개하는 등 유쾌하고 자유로운 현장 분위기를 조성해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청렴정책, 인구증가, 조직문화, 도시재생 등의 시정현안에 대해 모든 실무자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으로써 내실있는 토론을 이끌어 냈다.

또한 6급 이하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구성된'삼상플러스 미래디자인단'의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를 공유하는 등, 시장과 실무자가 직접 토론을 통해 현장감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발굴 방식을 도입했다.

대화를 주재한 장세용 시장은 "시정은 시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보다나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젊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구미시는 '인구정책 투게더 공감콘서트', '청소년 지방분권 토크콘서트'등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은진 기자

문경시, 경부도 저출생 극복 시책 평가서 최우수상 수상

문경시는 2019년 경북도 저출생 극복 시책 평가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경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 문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출생 극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증가TF팀을 구성·운영하고, 인구증가시책 개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년 대상 인구교육, UCC공모전을 실시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도란도란 문경 아이도담센터'가 선정됐고 경북도 주관 저출생극복 공모사업 '맘 편한 돌봄공부방', '문희경서 가족결혼식'도 선정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문경시는 타 지자체보다 차별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해 출산장려금 시범적 확대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확대, 아이돌봄 사업 지원 확대, 문경시 장학회 다자녀 생활 장학금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은진 기자

군위군, 유용미생물 유상전환

군위군은 수요자 중심의 적정공급과 유용미생물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하며 공급 가격은 8당 1000원으로, 단일균(생균제) 2당 2000원이다.

유용미생물 배양소는 2016년 농촌지도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16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군위군농업기술센터 부지 660㎡(건축면적 445㎡)에 '유용미생물 배양소'를 건립해 올해 1000여 농가에 90톤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했다.

유용미생물 배양소에서 공급 중인 유용미생물은 농업용 8종과 축산용 5종으로 총 13종이다.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농가는 연중 오전 9시~오후 6시에 농업기술센터 내 유용미생물배양소로 가면된다. 미생물 공급·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 공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며 군위군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현장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미생물을 수령할 수 있다. 박재성 기자

'상주 샤인머스켓' 말레이시아서 인지도 높인다

내년 1월 8일까지 쿠알라룸푸르 조호바루, 페낭 등에서 홍보 판촉

상주시는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그린빌(대표 장탁중), 중화농협(조합장 김후진)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상주 샤인머스켓 포도 홍보 판촉 행사를 열고 있다.

중화농협은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조호바루, 페낭에 위치한 프리미엄 마트 이온(Aeon) 32곳, 자야그로서(Jaya Grocer) 33곳에서 상주 포도 샤인머스켓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무료 시식회를 열고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있다. 시식한 현지인들은 '당도가 높고 육질이 아삭아삭해 정말 맛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홍보 행사는 현지 수입업체인 카이셴인트레이딩(Khaishern Trading)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지도가 높은 농특산물 수입업체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하고 있다. 수입한 농특산물은 현지의 마트 대부분을 통해 유통한다.

상주시 주선동 유통마케팅과장은 "이번 행사가 샤인머스켓 뿐만 아니라 상주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상주시체육회 초대 민간회장 대흥건설 김성환 대표 당선

상주시체육회 초대 민간회장으로 김성환(사진 오른쪽·64·대흥건설 대표)씨가 당선됐다.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치러졌다.

상주시체육회는 지난 24일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회장 선거에서 투표자 104명 중 73표를 얻은 김 후보가 31표에 그친 황영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내년 1월 16일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민간 체육회장직을 수행한다.

김성환 당선자는 "그동안 상주시체육회를 맡아왔지만 민선 1기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한국에서 모범이 되는 체육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태호 기자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권영세 안동시장은 26일 오후 도청 신도시에 있는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26일 오후 3시 제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세계불기 인삼할증역스포설립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6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혁대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예천군, 설맞이 제수용 7종 종합선물세트 판매

예천군은 설을 맞이해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을 통해 현대인의 트렌드에 맞춘 기획상품인 제수용 7종 종합선물세트를 제작하여 판매에 나섰다.

7종 종합선물세트는 사과와 배는 물론 한과, 곶감, 대추, 쌀 떡국, 밥으로 설 제사상에 필요한 농산물로 구성했으며, 고급형 포장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설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획상품은 2000세트 한정 판매 할 계획으로 가격은 택배비 포함 5만5000원으로 다량 구매 시 구매량에 따라 할인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농협 하나로 마트와 식자재마트는 물론, 예천군과 MOU를 체결한 이랜드리테일 등을 통한 대형 유통점 입점 판매를 협의 중에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종합선물세트는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 고품질의 상품으로 구성한 만큼 설 선물로 인기리에 판매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금년도 소비자의 호응에 따라 앞으로 선물세트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합선물세트 외에도 설 선물용 예천농·특산물을 온라인쇼핑몰 '예천장터'(WWW.YCJANG.KR)를 통해 특판행사하고 있다"라며 설 선물로 예천농·특산물 구입을 부탁했다.

한편, 종합선물세트는 예천군청 농정과 유통마케팅팀(연락처 : 054-650-6285)으로 연락하면 구매할 수 있다. 이주현 기자

안동시, 기업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올해 5개 기업과 700억원대 MOU 100여명 일자리 창출 성과 거둬

안동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 및 관광 분야 기업 유치와 바이오·백신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왔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를 민선 7기 최우선 공약과제로 삼고, 투자 마인드 함양을 위한 투자유치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올 한 해 동안 식품 제조 분야 4개 기업, 관광 분야 1개 기업 등 총 5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약 700억원대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내고, 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견 건설사와 총 250억원 규모의 휴양형 콘도 시설 및 놀이 시설 건립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메카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역의 차세대 핵심 산업인 바이오·백신 관련 기업 지원 및 기반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SK바이오사이언스(주)와 맺은 1000억원대 대규모 증설 투자협약에 따른 1단계 공사가 올 4월 완료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채비를 갖췄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인근에 약 57만㎡ 규모의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지난 10월 기공식을 갖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가 관련기업 투자유치 기반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기공식 장면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조성 중인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에 바이오, 백신, 식품 등 지역에 특화된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 지원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영주시, '힐리' 이모티콘 2만개 28분 만에 완판

힐리 이모티콘 16종 모음

1만5000개 추가 배포 '뽀로로보다 귀엽다' 인기 폭발

영주시가 연말연시를 겨냥해 새롭게 선보인 SNS 캐릭터 '힐리' 이모티콘이 눈 깜짝할 사이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저장됐다.

시는 16종의 캐릭터가 담긴 SNS 캐릭터 힐리(Hilly) 이모티콘 2만개가 지난 17일 오후 2시 공개된 지 28분 만에 전부 소진되며 '힐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입증됨에 따라 24일 오전 11시 1만5000개를 추가로 배포했다.

올해 처음 출시된 힐리 이모티콘은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동작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첫눈, 크리스마스, 새해인사 등의 이모티콘은 '뽀로로보다 귀엽다', '펭수보다 친근하다'는 국민들의 반응과 함께 연말연시에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힐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5월 개발한 영주시 SNS 캐릭터이다. 소백산을 직관적으로 형상화해 나뭇잎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산의 모습을 하고 있다.

24일 오전 11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1만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힐리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영주시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지역 주요소식, 축제 행사, 생활정보 등의 유용한 소식을 제공하고 힐링도시 영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용진 홍보전산실장은 "힐리의 귀엽고 재치있는 모습을 이모티콘에 그대로 반영해 제작한 것이 큰 호응을 얻은 이유였다"며 "앞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영주시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꾸준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 소백힐링 연구회 성과보고회 6개 동아리 연구성과 발표

영주시가 공무원 정책동아리의 올 한 해 성과물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강당에서 영주시청 공무원 정책동아리 '소백힐링 연구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상은 관광객을 영주로 오게 하는 방법, 영주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 남 다른 영주가 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한 Y영주팀 '영주를 Young하게 만들자'라는 주제로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리메이크 서천변, 자꾸만 찾게 되는 서천 로드맵을 연구한 '자전모리팀'이, 우수상은 영주 음식관광과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한 '힐링스케치팀' 각각 수상했다.

소백힐링 연구회는 직원들의 정책제안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의 각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총 6개 분야(지역경제, 문화관광, 힐링복지, 행정효율, 정책발굴, 사회복지) 54명으로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영주시 직원들이 결성한 정책동아리가 한 해 동안 치열하게 연구한 성과를 선보였다.

수소자동차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연구한 '트리플 H팀'부터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방안을 연구한 '영주누리보듬팀'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총 6팀의 정책동아리는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연구 성과평가는 현장평가단(200명) 평균점수 60%와 심사위원(10명) 평균점수 40%를 합산해 평가했다. 200명의 현장평가단원들은 무선투표시스템으로 투표를 실시해 순위를 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했다.

시는 단기적인 혁신성과도 중요하지만 학습동아리를 통해 공무원 스스로 공부하고 지식을 함께 나누는 학습동아리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발굴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전상기 기자

청송군, 2019년 주택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청송군은 "2019년 경북도 건축·주택업무 종합평가"에서 주택행정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시군의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 건축 질서 정착,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주택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

청송군은 이번 평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H와 협약을 통하여 추진해 오던 진보면 각산리 LH임대아파트 100세대를 올해 준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이 인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윤명문 기자

안동시, 재난안전시책 분야 평가 '대상'

풀링포그·스마트 그늘막 설치 버스정류장 얼음 비치 등 시책 돋보여

안동시가 경북도에서 시행한 '2019년 재난안전시책 분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재난안전시책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초부터 11월 말까지의 업무 성과 등을 평가했다.

주요 평가 분야는 안전 경북 실현 및 비상재난대비 능력 강화 분야, 사회재난 예방 분야, 자연재난 대응력 강화 분야 등 26개 항목이었다.

특히, 시는 올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라디오 공익 캠페인 시행, 폭염 대비 쿨링포그 및 스마트 그늘막 설치, 버스정류장 대형얼음 비치 등 안전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면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 대상 수상에 따라 시는 포상금 240만원과 유공 공무원 경북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재난 안전시책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러한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우수시책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이 안전한 안동' 건설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길 기자

버닝썬·프듀조작 얼룩…BTS 신드롬

가 요

2019년 가요계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수많은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연초부터 '버닝썬 게이트'가 가요계를 강타했다. 클럽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손님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된 이 사건은 '나비효과'의 전범이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밤송 등을 통해 홍보한 클럽으로 마약 유통, 경찰 유착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이 클럽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이던 승리는 후폭풍으로 팀을 탈퇴한 것은 물론 연예계까지 은퇴해야만 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의혹도 받았고 해외 원정 도박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승리에 대한 각종 의혹은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에게까지 번지면서, 폭풍이 휘몰아쳤다.

▣'정준영 카톡방 논란'

승리 건은 '정준영 카톡방' 논란으로도 번졌다. 승리의 여러 의혹을 조사하던 중 그와 정준영 등이 메시지를 나눈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성관계 동영상이 공유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일부 가수들의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됐고 가요·연예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고 해당 논란 중심에 있던 정준영과 벤드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은 연예계를 은퇴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6년과 5년의 징역을 선고했으나 두 사람은 항소했다.

▣음원 사재기로 인한 차트 조작 시비

가요계에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음원 사재기'로 인한 '실시간 차트 조작' 논란도 올해 다시 불거졌다. 초에 인지도가 없는 가수 우디의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이 음원차트 1위에 오르면서 일부 시비가 불거지기는 했다.

무엇보다 최근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이 일부 가수들의 실명을 거명하며 사재기 의혹을 제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고 썼다. 이후 가요계 곳곳에서 "나도 브로커로부터 음원 사재기 제안을 받았다", "누가 사재기를 했다고 들었다" 등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박경으로부터 거명된 가수들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경에게 법적 대응을 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듀' 시리즈 조작 논란

올해는 또 하나의 조작 논란이 추가됐다.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의혹 논란이다. 지난 7월 '프로듀스' 네 번째 시리즈인 '프로듀스 X 101'의 생방송 결선 투표에서 순위 차이의 표가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시청자들이 발견, 논란이 시작됐다.

결국 '프로듀스 X 101'과 전년도 시리즈인 '프로듀스 48'이 조작됐다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각각 시리즈를 통해 결성된 '엑스원'과 '아이즈원'은 활동을 중단했다. 큰 인기를 누리다 활동기한이 끝나 해체한 시즌1의 '아이오아이'와 시즌 2의 '워너원'도 조작 의심을 받으면서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유명 기획사에 속하지 않은 연습생들에게 '기천에서 용 날 기회'를 줬다는 평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결국 '취업 사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엠넷을 운영하는 CJ ENM에게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총괄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 제작진은 재판에 넘겨졌다.

▣설리·구하라 사망에 가요계 침울…"악플 근절 목소리 높아져"

살아생전 절친했던 그룹 'f(x)' 출신 설리와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한달여 사이에 잇따라 사망한 사건은 가요계를 넘어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열한살 때인 2005년 드라마 '서동요'로 데뷔한 설리는 2009년 f(x)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전통적인 K팝 아이돌에서 벗어나 있었다. 아이돌에게 판에 박힌 틀을 요구하는 세상 분위기에서 비껴가며 아이콘으로 통했다.

아일랜드 출신 세계적 록밴드 'U2'는 결성 43년 만인 지난 8일 밤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연 첫 내한 콘서트에서 '울트라 바이올렛(Ultra violet)'을 부를 때 한국사회를 바꾼 여성의 얼굴을 스크린에 띄웠는데 설리도 포함돼 있었다.

구하라는 한류 2세대를 대표하는 카라의 간판이었다. 이 팀은 2013년 한국 여성 가수 처음으로 현지 '콘서트계의 성지'로 통하는 도쿄돔에 입성하는 등 일본 내 한류 절정을 이끌었다.

구하라는 일본 톱가수 아무로 나미에를 닮은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팀의 마스코트로 등극했다. 화려한 외모와 열정적인 모습으로 팬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으며 '천상 아이돌'로 통했다.

설리와 구하라의 사망 이후 두 사람을 괴롭히던 악플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한정하는 것은 답변이 힘들다. 하지만 미국 CNN이 구하라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이 온라인 악플로 인한 K팝 스타들의 극심한 압박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고 짚었듯이, 이번을 기점으로 악플 문제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자체적인 의견이다.

▣'국민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 제기

올해 막바지에는 '국민 가수'로 통한 가수 김건모의 '성추문 스캔들'로 가요계가 시끌시끌하다. SBS TV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선보인 혐없는 노총각 이미지로 재조명된 김건모는 최근 파이낸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과 혼인신고를 하며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순신각에 추락하고 있다. 여성 A는 과거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감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폭로를 한 뒤 그를 강 변호사를 통해 고소했다. 김건모는 A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가요계에 어두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전통 대중음악인 트로트가 재발견된 것이 반가운 일이었다.

▣미스트롯·송가인·유산슬 신드롬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미스 트롯'과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트로트가수 송가인이 재평화한 '트로트 열풍'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재석이 '무한도전'의 김태호 PD와 다시 뭉친 MBC TV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선보인 코너 '뽕포유'를 통해 트로트가수 '유산슬'로 변신한 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TV조선은 내년 초 '미스 트롯'의 후속 '미스터 트롯'을 내보낼 예정으로 트로트 열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명실상부 '21세기 비틀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에 K팝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연이어 월드클래스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세 번째 1위에 올랐다. 특히 영국 벤드 '비틀스' 이후 처음으로 1년 안에 세 개의 앨범을 연달아 '빌보드 200' 정상에 올리는 기록을 썼다. 이후 명실상부 '21세기 비틀스'로 통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K팝 가수 처음으로 세계 콘서트계의 심장으로 통하는 영국 런던 웸블리 무대에 섰다. 지난 10월에는 분화에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스타디움에서 비아랍권 가수 처음으로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지난달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통하는 '2019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2019 American Music Awards·AMAS)에서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는 등 세계 주요 시상식을 휩쓸고 있다.

▣슈퍼엠·블랙핑크·트와이스도 활약

방탄소년단이 세계 팝 시장 문을 활짝 열어젖힌 뒤 잇따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연합 팀인 '슈퍼엠'은 셀프 타이틀의 데뷔 앨범으로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그룹 '블랙핑크'는 지난 4월 공개한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가 지난달 유튜브가 발표한 '2019년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 7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K팝 가수 중 유일하게 톱 10에 진입하는 등 K팝 걸그룹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한일 관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최악의 관계에 접어든 가운데도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팝 가수들은 현지에서 활약하며 민간 외교관 역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룹 '트와이스'는 일본 연말 최고의 가요 축제로 통하는 'NHK 홍백가합전'에 올해 말까지 3년 연속 출연을 확정했다. 블랙핑크는 지난 4일 연 도쿄돔 콘서트 5만5000석을 매진시키는 등 역시 현지에서 순항 중이다. 이 도쿄돔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오사카 교세라돔, 2월 후쿠오카 야후오크돔 등 일본 3개 도시에서 4회 돔투어를 연다.

그룹 빅뱅 멤버 승리

방탄소년단

천만영화 5편 탄생…여성 감독 활약

영 화

올해 영화계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올해 처음으로 '천만 영화'가 다섯편이나 나왔다.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다. 비수기 개봉 영화가 크게 성공하고, 성수기 대작들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중박' 영화가 실종됐다.

해외 영화제에서 낭보도 이어졌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함께 흥행에도 성공하면서 한국영화 100년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남게 됐다.

김보라 감독의 '벌새'는 국제 영화제에서 40관왕을 차지하며 독립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19년 영화계 사건사고를 정리했다.

▣올해 천만영화 5편 나왔다…중박 영화 '실종'

올해 처음으로 한 해에 다섯 편의 '천만 영화'가 탄생했다. 이전까지 '명량', '국제시장', '겨울왕국', '인터스텔라' 총 4편을 배출한 2014년이 최다 기록이었다.

'극한직업'(감독 이병헌)은 설 연휴 극장가를 장악하면서 2월6일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어벤져스: 엔드게임'(감독 앤터니·조 루소)은 5월4일, '알라딘'(감독 가이 리치)은 7월14일 1000만 관객을 모았다. '기생충'(감독 봉준호)는 7월21일, '겨울왕국2'(감독 크리스 벅·제니퍼 리)는 12월7일 10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방학·휴가가 맞물린 7~8월, 12월, 명절 연휴가 전통적 성수기다. '극한직업'만 설 연휴를 겨냥해 개봉했고, 나머지 영화 네 편은 비수기에 개봉했다.

콘텐츠만 훌륭하다면 대작이 쏟아지는 성수기보다 비수기에 개봉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 됐다. '대박' 아니면 '쪽박' 영화만 있을 정도로 양극화 현상이 심했다. 500~800만 명 사이의 '중박' 흥행을 기록한 한국영화는 11월까지 한 편도 없다.

▣천만영화 3편 배출한 디즈니…스크린 독과점 '논란'

올해 극장가는 디즈니가 잠악했다. 천만영화 다섯 편 중 세 편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배급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22번째 작품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어벤져스4)은 1393만4582명을 모았다. '알라딘'도 무서운 흥행 뒷심을 발휘하며 디즈니 라이브액션 영화 중 첫 1000만 영화가 됐다. '겨울왕국' 시리즈는 역대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최초로 두 작품 모두 10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했다. 1편(2014)은 개봉 46일 차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으나, 2편은 개봉 17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디즈니의 막강 파워를 입증했다.

그러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일으키며 영화계와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어벤져스4', '겨울왕국2'는 개봉 첫주 2000개가 넘는 스크린을 차지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봉준호 '기생충', 한국 최초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봉준호(50) 감독은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빈부격차 문제를 다룬 블랙코미디 장르의 영화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충족시켰다. 개봉 53일 만에 1000만 관객 고지를 밟았으며, 한국을 시작으로 프랑스·스위스·호주·북미·독일 등 37개국에서 개봉했다. 올해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중 최고 수입을 올렸다. 뉴욕 비평가협회상(외국어 영화상), 전미 비평가위원회상(외국어 영화상) 등 다양한 해외 영화제·시상식의 상을 휩쓸었다.

'기생충'은 내년 1월5일(현지시간) 열리는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감독상, 각본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노미네이트됐다. 내년 2월9일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외국어영화상, 주제가상 예비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여성 창작자의 약진…'벌새' 국내외 40관왕

여성 감독들은 극장가에 활력을 안겼다. 김보라 감독의 '벌새'는 국내외 주요 영화제에서 40관왕을 휩쓸며 '독립영화계 기생충'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넷팩상·관객상, 이스탄불영화제 국제경쟁부문 대상, 베를린 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부문 그랑프리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8월29일 개봉 후 13만5000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독립영화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영화 '우리집' 스틸컷

봉준호 감독

영화 '겨울왕국'

여성 창작자의 약진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우리집'의 윤가은 감독, '생일'의 이종언 감독, '82년생 김지영'의 김도영 감독, '메기'의 이옥섭 감독, '범의 문이 열린다'의 유은정 감독, '가장 보통의 연애'의 김한결 감독 등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더욱 중요해진 '입소문'…20대 파워

관객평을 보고 영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 CGV 리서치센터는 급변하는 영화 시장에서 최종 관람객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20대의 관람 의향이라고 분석했다.

CGV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대 관객은 콘텐츠를 조기 수용하고 가치 소비 관람 패턴을 보이며, 또래 집단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이슈를 재생산해낸다.

대표적인 예시로 영화 '알라딘'을 들 수 있다. '알라딘'은 개봉 첫날 관람객이 7만3000명에 불과했다. 1000만 영화 중 개봉일 성적이 10만 명 미만인 것은 '알라딘'이 유일하다. 그러나 20대 관객 중심으로 입소문이 강하게 퍼지면서 전 연령대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4DX N차 관람을 주도하면서 1000만 관객 돌파의 원동력이 됐다.

영화 '기생충' 포스터

세상 사람

따뜻한 세상 함께 만드는 사람

권영진 대구시장 은 26일 오전 9시 대구시청에서 개최되는 '어너소사이어티 가입식'에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지사 는 26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2019년 경북도 최고장인에 선정된 5명에 대해 '최고장인 인증패'를 수여한다.

김문오 달성군수 는 26일 오후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열리는 '2019 달성군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한다.

배광식 북구청장 은 26일 오후 구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희망더하기 우리마을 행복주치의 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류규하 중구청장 은 26일 오전 남산동남산로 33에서 열리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다기온(ON)' 개소식에 참석한다.

배기철 동구청장 은 26일 오전 소회의실(3층)에서 '모범통장·퇴직통장 표창(감사장)수여식'에 참석한다.

대구광역일보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창간 1996년 7월11일
누 리 집 : www.c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85길 60(5층)
대표전화 053-253-0000
광고접수 053-257-0000
F A X 053-253-0041
발행·편집인 김 성 용
무 사 장 조 여 은

구독료 : 월정 14,000원 1부 7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메이커스랩 '지니'에서 VR 체험을 하고 있는 영남이공대학교 학생

영남이공대, 명덕역 메이커스랩 '지니' 개소

메이커 문화 확산·취창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 역량 강화 기여

영남이공대학교가 23일 명덕역 지하 1층에 메이커스랩 '지니'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조재구 대구시 남구청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대구시 및 대학 관계자가 참여했다.

해당 행사는 각 참여자의 축사와 커팅식, 시설 투어 등으로 이뤄졌다.

메이커스랩 지니는 남구를 비롯한 지역민을 위한 메이커 공간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 무료 대여를 제공한다.

메이커스랩에 보유된 3D 프린터, 3D 스캐너, AR, VR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아이디어를 창작활동으로 연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각 연령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표적인 시니어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안마기 만들기, 민속용품 만들기, 손자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등이 있다.

이것은 실버 계층의 교류 및 취미생활 공유 공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재훈 총장은 "대구지역의 메이커 문화 확산과 취·창업의 꿈을 실현에 영남이공대학교가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쁜 날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 연계를 위한 중간자 역할 잘 수행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황태용 기자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 이웃돕기 성금·장학금 기탁

동절기 맞아 나눔 실천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화)는 24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회원들이 심시일반 모은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을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경산시에 기탁했다.

바자회를 개최해 마련한 수익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소외계층에 위문품 전달, 이웃돕기 성금 기탁, 복지관 급식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김경화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성금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신경훈 기자

윤경희 청송군수,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역농산물 직접 홍보 농협 경제사업 성과 공로 인정

윤경희 청송군수가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고 농협 경제사업 성과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24일 청송군수실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을 대신해 이재호 농협청송군지부장, 김종두 청송농협장, 조용국 남청송농협장, 김성동 청송영양축협장, 황대영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감사패를 전수한 이재호 지부장은 "평소 세일즈 군수를 자처하며 산지와 소비지가릴 것 없이 동분서주 청송사과를 홍보하시고, 지역농협 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건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농협중앙회에서 300만 농업인을 대표해서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그 어떤 칭찬과 포상보다도 뜻깊은 감사패를 받은 것 같다"며 "농협이 유통의 최일선에서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농업과 농촌이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행정과 농협의 협업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병문 기자

수성구 사회복지공무원, 이웃돕기 '일일 산타'

수성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관내 아동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수성구 23개동 사회복지 공무원은 지난 24일 일일 산타로 변신, 각 동 1명의 저소득 아동을 직접 방문해 준비한 선물과 케이크를 전달하는 등 성탄절 온기를 더했다. 이 행사는 수성구 사회복지 공무원 모임인 수행연(회장 김태동)에서 기부한 후원금으로 추진됐다.

남구 관문상가시장 상인회, 사랑의 성금전달

대구 남구청 지난 23일, 관문상가시장 상인회(회장 박삼수)에서 구청장실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16만200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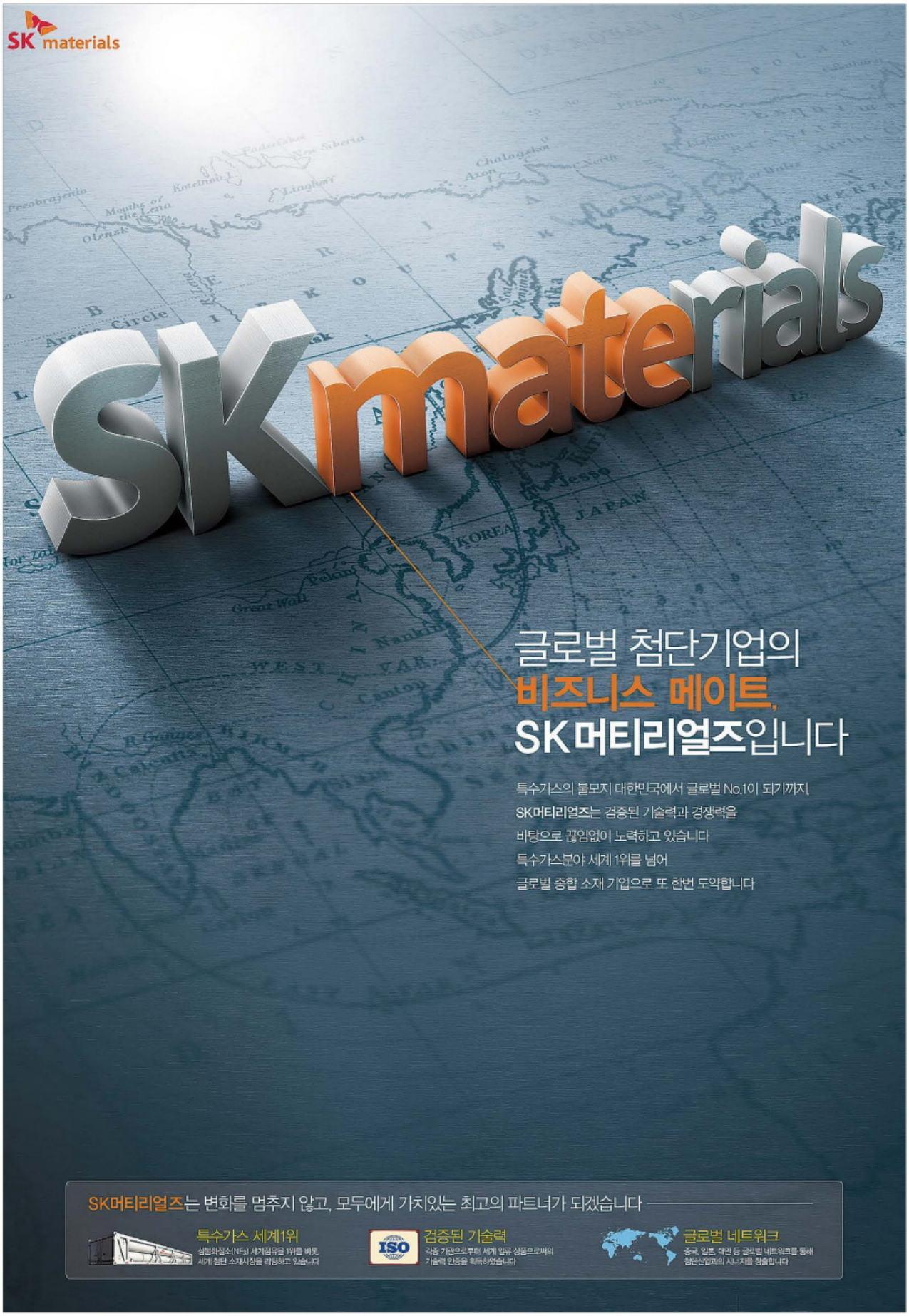
이번 성금은 관문상가시장 상인회 290여명 회원들이 심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으로, 이번 전달식에는 관문상가시장 상인회 박삼수 회장과 이한수 부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동구 효목2동, 사랑의 몰래 산타 출정

대구 동구 효목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환형, 이원준)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행정복지센터 및 충효행복지킴원 10여명으로 사랑의 산타 봉사대를 구성한 후, 아동 책가방, 운동화, 패딩 등으로 각 1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를 만든 후, 저소득 소년소녀가장과 다문화가정 아동 6가구를 직접 방문해 선물전달 및 위로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북구 태전1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행사

대구 북구 태전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옥연, 10여개의 단체 대표 및 회원 200여명)는 22일 19시, 강북컨벤션 5층 컨벤션홀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연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 774만원 상당을 기탁해 이웃 사람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모범학생에게 교복 증서 20벌 및 장학금 60만원을 지원하고 후원 발굴 대상자에게 생필품 교환이 가능한 상품권과 긴급구호비로 총 400만원상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SK materials
SK materials
글로벌 첨단기업의
비즈니스 메이트,
SK머티리얼즈입니다
특수가스의 불모지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No.1이 되기까지,
SK머티리얼즈는 검증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가스분야 세계 1위를 넘어
글로벌 종합 소재 기업으로 또 한번 도약합니다
SK머티리얼즈는 변화를 멈추지 않고, 모두에게 가치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특수가스 세계1위
삼불화질소(NF3) 세계점유율 1위를 비롯,
세계 첨단 소재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ISO
검증된 기술력
각종 기관으로부터 세계 일류 상품으로써의
기술력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중국, 일본, 대만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첨단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합니다